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9. 18(금) / 총 4매(본문4)
담당 부서	국제민간항공 기구전략기획팀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팀장 이호진, 사무관 하후호, 주무관 지민정 • ☎ (044) 201-4251, 4252
	미래드론교통담 당관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당관 이량, 사무관 서정석 • ☎ (044) 201-4198
	국제항공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소영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정재향 • ☎ (044) 201-4215, 4216
	항공기술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민풍식, 사무관 원정윤, 주무관 김은혜 • ☎ (044) 201-4285, 4292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한-유럽 간 항공운송 · 항공안전협력강화 기반 구축

항공운송 조기회복, UAM·드론분야 협력 강화, 일자리 창출 등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유럽항공안전청(EASA)의 요청으로 9월 1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패트릭 키(Mr. Patrick Ky) 유럽항공 안전청장이 화상면담을 갖고,
 -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(모델명: EC155B1) 생산라인 국내이전 및 국내에서 생산된 헬리콥터의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
 -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항공운송회복 지원 및 협력방안, 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 Mobility) 및 드론분야 기술협력과 인력 교류, 기술표준품 수·출입 간소화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.
- * 유럽항공안전청(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):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 산하에서 항공안전법률, 항공기 제작·운항인증, 안전관리 등 제반 정책 총괄

□ 에어버스는 헬리콥터(EC155B1) 생산라인을 경남 사천에 '2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, 이번 업무약정*은 국내에서 원활한 헬리콥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○ 향후 국내에서 동 헬리콥터가 생산되면, 국내 항공 제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,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예상된다.

○ 또한, 국내에서 제작·인증된 항공제품이 유럽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항공당국에서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.

* 업무약정(Working Arrangement): 국토교통부-EASA간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며, 에어버스 헬리콥터 국내생산 시 시험비행허가 등 지원사항 포함

□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이자 혁신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(UAM)을 비롯한 드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.

○ 이 분야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힘입어 꾸준한 시장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, 혁신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당국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.

○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장에게 올 6월 한국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“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로드맵(‘20.6.4)”을 발표했고 로드맵 실행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로서 “UAM Team Korea”를 운영(‘20.6.24~) 중임을 설명하였고,

- 유럽항공안전청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K-UAM로드맵을 비롯한 드론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, EASA와 이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.

○ 이에 양측은 기존 국토교통부-유럽항공안전청 간 맺은 항공안전 합의서(MOU, '19.1)에 이 분야의 협력사항을 추가*하는데 동의하고 서면으로 개정절차를 마무리해나갈 예정이다.

* ①규제사항에 대한 정보교환, ②연구개발 정보 공유, ③교육프로그램, 회의, 워크숍 공동 개발 및 개최, ④인증문제에 대한 협력

- 이를 기반으로 양 측은 전문인력 교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, 추가적인 협의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.

□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였던 양 지역간 항공운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, 양 지역이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고 있음을 언급하며, 상호간 감염확산 보건조치 및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.

○ 이를 위해, 양측은 한국과 EU의 방역지침을 공유한 후,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교통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가운데, 급감한 항공교통량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로 하고, 양측의 공항운영자와 민간항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항공안전합의서의 부속서 추가,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 조치 관련 양해각서 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,

○ “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항공안전청과 도심항공교통(UAM), 드론, 항공제품 상호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통해 기술표준, 항공안전, 항공기 제작·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
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하후호사무관(☎044-201-42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